

광주 산하기관장 인선 본격화...물갈이 폭 주목

민선 7기 광주시의 산하 공기업과 출연기관장 인선이 본격화됐다. 특히 이용섭 시장이 내년 이후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장에 대해서는 직무 전문성·리더십 등을 평가해 임기보장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 상황이라서 물갈이 폭이 얼마나 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5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산하기관 중 기관장이 공석인 광주관광컨벤션뷰로가 대표이사 공모에 들어갔고, 광주도시공사와 김대중컨벤션센터는 광주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추천을 의뢰했다.

시 산하기관은 공사·공단 4곳과 출자·출연기관 20곳 등 모두 24곳에 달한다. 현재 기관장이 공석인 곳은 도시공사·테크노파크·과학기술진흥원·그

컨벤션뷰로 공모...도시공·DJ센터 추천위 의뢰 시 “경영성과·시정방향 등 기준 임기보장 판단해”

린카진흥원·관광컨벤션뷰로 등 5곳이다. 올해 안에 임기가 끝나는 기관은 정보문화산업진흥원(11월)·광주영어방송(9월) 등 2곳이다.

지방선거 직후 이용섭 시장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난 6월말 이치훈 대표이사가 사직한 광주관광컨벤션뷰로는 최근 대표이사 채용공고를 냈다. 응시자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5급 상당 이상 공무원 경력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3급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법인에서 관

리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등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다. 1차 서류심사 합격자는 오는 16일 개별통지하고 2차 면접심사는 22일 예정이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오는 23일 광주관광컨벤션뷰로 누리집에 공고한다.

광주도시공사와 김대중컨벤션센터는 최근 광주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추천을 의뢰했다. 7명으로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는 시장이 2명, 시의회가 3명, 자체적으로 2명을 추천한다.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면 공모와 심의를 거쳐 2배수를 광주시장에게 추천하게 된다. 이같은 절차를 거치면 대표이사를 선임하기까지 약 2개월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현재 대표이사가 공석인 과학기술진흥원과 그린카진흥원도 조만간 공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9일 광주시는 올 하반기 임기가 만료되는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이후 임기 만료 공공기관장에 대해서는 현 기관장의 직무 관련 전문성, 조직을 이끌고 운영하는 리더십, 민선 7기 시정철학과 방향성 측면을 기본으로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임기보장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내년 이후 임기가 만료되는 공공기관장

은 2019년 7명, 2020년 7명, 2021년 1명 등 15명이다.

회계질서 문란·무리한 인사·공용차량 부당사용 등으로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적발돼 중징계 조치된 광주디자인센터 원장은 민선 7기 들어 첫 중도낙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다른 일부 공기업 기관장은 상식을 벗어난 인사로 잡음 등이 끊이지 않는 등 물의를 일으킨 기관장도 상당수 있어 산하기관장 물갈이 폭이 커질 수도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재신임 여부 기준과 방식에 대한 방침에 변함이 없다”며 “현재 기관장이 공석 중인 공공기관부터 절차에 따라 차례로 인선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투데이뉴스

“옛 전남도청 복원 지원” 이용섭 시장, 대책위 면담



이용섭 시장이 “옛 전남도청 복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3일 시청에서 이철우 옛 전남도청 복원 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 김후식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장, 류봉식 광주진보연대 상임대표, 홍성철 진보연대 집행위원장 등과 면담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철우 상임공동위원장 등은 “1년여 전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광주를 찾아 옛 전남도청을 행정당시 모습으로 복원하겠다고 밝혔는데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계획 등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며 “민선 7기 임기 내에 5월 문제가 마무리되도록 광주시가 힘을 실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옛 전남도청 복원 실무관련 광주시 담당자 파견, 건물 내 전시물 철거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서 추진을 약속했다”며 “시장으로서 중앙부처를 설득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 광주 시도 복원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시장은 “오는 2020년이면 5·18이 40주년을 맞는다”며 “내년 39주년 기념식은 광주를 넘어 대한민국의 5·18로, 2020년 40주년을 세계적 5·18 행사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옛 전남도청 복원 실무관련 광주시 담당자 파견, 건물 내 전시물 철거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서 추진을 약속했다”며 “시장으로서 중앙부처를 설득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 광주 시도 복원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시장은 “오는 2020년이면 5·18이 40주년을 맞는다”며 “내년 39주년 기념식은 광주를 넘어 대한민국의 5·18로, 2020년 40주년을 세계적 5·18 행사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목앞치마예술제...국제수목비엔날레 홍보

목포 재래시장서 김규리 홍보대사 증정행사

“2018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개최를 알리는 사전행사 ‘수목앞치마 예술제’가 지난 3일 목포 자유시장(남진야시장)에서 열렸다.

‘수목앞치마 예술제’는 수목비엔날레를 한 달여 앞두고 ‘예향남도에서는 앞치마, 장바구니 한 장도 예술이 된다’는 주제로, 전통시장과 연계해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려 수목비엔날레의 성공개최를 지원하는 장으로 치러졌다.

지역 수목작가 20명이 참여해 국화·매화 등 20점을 그린 실용적 앞치마 1,000 점과 장바구니용 예코백 500점을 인쇄, 남진야시장을 찾아온 시민과

관광객에게 배부하고 수목비엔날레를 홍보했다.

증정식에서는 수목비엔날레 홍보대사인 김규리씨가 꽃·버드나무·두꺼비 등을 그려 넣은 수목 앞치마 8점을 선보였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행사에서 “우리 수목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도민들과 관광객들이 직접 와서 체험하고 함께 보는 행사로 개최할 계획”이라며 “행사기간 동안 다채로운 체험과 남도 관광 상품을 마련해 주민들의 주머니에도 보탬이 되는 경제 비엔날레로 치러진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3일 오후 목포자유시장에서 열린 수목앞치마예술제에서 관광객들에게 앞치마를 나눠주고 있다.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는 ‘오늘의 수목 어제에 묻고 내일에 답하다’란 주제로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목포 갓바위 문화타운과 진도 운림산방 일원에서 개최된다.

폭염 속 ‘나누고 배려하는’ 시민의식 빛났다

광주공동체 재난극복 모범사례 자리매김 시, 시장 표창·행안부 포상 등 건의 예정

광주지역에 1939년 이래 최고기온을 새로 쓰는 등 역대급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시민들의 나눔과 배려의 미담이 확산되고 있어 화제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복구한 주민은 지난달 19일부터 우산·양산·문화·일곡 제2근린공원 등 4곳에 하루 생수 400병씩을 비치하고 있다.

시민들로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도 돋보였다. 서구방재단은 품급사거리에서 생수 25상자·부채 등을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광천경로당을 찾아 생수와 포도 상자를 전달하며 어르신들을 위로했다. 또 습터어르신들에게는 텃밭에서 가꾼 열무와 배추를, 독거노인들에게는 반찬을 전달했다.

남구방재단은 월산2동·월광·월산·남부 경로당에 각각 생수 4상자와 부채·아이스 스킨프를 전달하고, 북구방재

단은 27개 경로당에 4kg 상당의 미숫가루를 전달했다.

주민자치위원회도 나눔에 함께 했다. 첨단2동위원회는 그늘막 8곳에서 릴레이로 생수를 기부받아 나눔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고, 신가동위원회는 수완센트럴병원 구내식당에서 경로당 어르신 150여명을 초청해 삼계탕을 대접했다. 월곡2동위원회는 롯데리아 광주하남점 사거리 그늘막 쉼터에서 릴레이 생수나눔 봉사를 했다.

금융권에서는 광주은행이 전체 74개 영업점을 무더위쉼터로 개방하고, KB국민은행이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에 1,000만원을 지정기탁, 광산우체국이 우산동 행복복지센터에 선풍기 12대를 전달했다.

군에서는 향토사단인 31사단 화생방지원단이 지난달 19부터 화생방차량 5

대를 활용해 도심 살수지원에 나섰다.

건설사는 살수차로 도심을 식히고 있다. 광산구 관내 A 건설사는 폭염 대응 차원에서 공사장 살수차를 활용해 공사장 주변 2km까지 살수를 하고 있다.

더불어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광산구협의체는 그늘막 쉼터 3곳에서 생수나눔 봉사를 하고, 경로당 16곳과 독거노인들에게 닭과 수박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2일 열린 임시간부회의에서 폭염극복에 적극 나서 준 유관기관·군·민간단체 등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런 광주시 시민안전실장은 “폭염극복을 위한 민·관·군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다지고 민간부문의 폭염대응 자발적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해 폭염대처에 노력한 유관기관·시민단체·시민 등에게 시장 표창을 수여하고, 행정안전부에 포상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황애란 기자



하정웅청년작가초대전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지난 3일 오후 서구 하정웅미술관에서 열린 ‘하정웅청년작가초대전 2018 빛 개막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지방의원 째질돈’ 재량사업비 찬반 논란

“비리온상 폐지해야” vs “소규모 지역사업 위해 필요”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관련 예산항목은 사라졌지만 사실상 다른 이름으로 운영중이고, 전남도는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예산을 여전히 편성 중이다.

이런 지방의원 재량사업비에 대해 일부에서는 소규모 지역사업들을 해결하는 사업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비리의 온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5일 광주시·전남도도와 시·도의회에 따르면 전남도의 경우 최근 도의원들로부터 1인당 2억원 범위 안에서 농로포장 등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내역을 제출받아 116억원 규모의 재량사업비를 추경안에 반영했다.

재량사업비는 이미 올해 본예산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로 의원 1인당 5억원씩 290억원을 편성해 모두 집행했는데, 선거로 새로 당선된 도의원들 때문에 또 편성했다.

전남도교육청도 본 예산에 1인당 5,000만원씩 29억원을 재량사업비로 편성해 집행했고, 추경에 추가로 세워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광주시와 시교육청은 재량사업비라는 명목으로 사업예산을 따로 만들

지는 않지만 다른 명목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재원조정 교부금의 일부를 특수시책이나 현안해결 사업비로 마련해 이를 시의원 지역구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는 것.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로 불리기도 하는 재량사업비는 이를 둘러싼 비위사건이 끊이지 않아 대체로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전남도의회에서는 지난해 1월 재량사업비 공사를 알선해 주고 건설업자한테 1,940만원을 받은 혐의로 도의원이 구속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의회 소속 정의당이 보라미·최현주 의원은 지난달 30일 의장단을 만나 “비리온상인 재량사업비를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역의 작은 숙원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되기도 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도의회도 재량사업비 폐지보다는 사업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공개입찰을 거쳐 사업을 시행한다는 약속을 대신 내놓기도 했다.

전남도의회 한 의원은 “주민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본예산에 반영하기 힘든 예산의 경우 재량사업비가 큰 도움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정근산·황애란 기자

“CCTV가 시민안전 책임진다”

4,500대 카메라 112센터 등 실시간 연결

광주시가 CCTV를 활용한 시민안전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안전한 광주’ 건설에 돌입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에 선정돼 국비 6억원·시비 6억원 등 총 12억원을 투입, 최근 ‘스마트시티 5대 시민안전서비스’ 구축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스마트시티 5대 시민안전서비스’는 광주시에 설치된 4,500여대의 CCTV 영상 정보를 광주경찰청

(112센터)과 소방안전본부 상황실(119상황실), 시 재난상황실 등으로 실시간 연결해 각종 범죄·재난·구조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공모선정 이후 계약자 선정 및 사업 추진을 거쳐 올해 5월부터 3개월간 서비스를 시범 운영했으며, 8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112긴급영상 지원서비스가 시행되면 CCTV통합관제센터 전문관제요원은 범죄 의심 현장을 포착할 경우 실시

/황애란 기자

청년 창업농 60명 추가 지원 도, 3년간 연도별 차등 지급

전남도는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60명을 추가로 선발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40세 미만, 영농 경력 3년 이내 청년 창업농을 선발해 최장 3년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1년 차에는 월 100만원, 2년 차에는 월 90만원, 3년 차에는 월 80만원을 지원한다.

추가 지원대상 선발에는 모두 276명이 신청해 4.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남도는 지난 1차에 169명을 선발해 바우처카드를 발급, 지난 4월부터 영농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은 농가경영비와 일반가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농지나 농기계 등 자산 취득용도·유증비 등으로는 쓸 수 없다.

전남도는 오는 2022년까지 청년 창업농 1,500명을 선발해 미래 농업 인력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정근산 기자

전남기업 네팔진출 발판 마련 민간 비즈니스센터 개소

전남 중소기업들이 네팔 시장진출을 위한 마케팅 활동에 나섰다.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생물방제연구소는 최근 네팔 카트만두에 민간 비즈니스센터를 열고 전남 수출상품 로드쇼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민간 비즈니스센터는 현지에 이미 진출한 전남기업이 주축이 돼 새롭게 진출하려는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마케팅 등에 협력하는 창구다. 전남에서는 대장식품·대류식품·참살이 등 11개 기업이 수출을 시작했다.

개소식과 함께 열린 수출 로드쇼에서는 전남에서 생산한 목은김치라면과 닭고기라면이 인기를 끌었다고 생물방제연구소는 전했다.

/정근산 기자